

소망이 있기에 !

고현권 목사

을 한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역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너무나 생소했던 영어단어 “팬데믹”(pandemic)이 너무나 친숙한 말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글로 2020년 마지막 주보 컬럼을 마무리할까 생각하는 중에 제 마음에 “소망”이라는 두 글자가 강하게 밀려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 한토막이 생각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거의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나치독일의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가장 큰 사인은 바로 절망이었습니다.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다수의 유대인들은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나오는 것이 막 사는 것이었습니다. 똥오줌을 아무데나 싸고, 세수하는 것을 포기하고 지저분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의사 출신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해방의 날을 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수용소 생활이 점점 길어질수록, 해방의 날은 점점 더 다가오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해방의 날에 짐승 같은 물골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망 때문에, 그는 막 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땅바닥에서 유리조각을 하나 주웠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면도를 하고, 물을 아끼고 아껴 세수를 하였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유리조각으로 어떻게 제대로 된 면도를 할 수 있겠으며, 손바닥만한 물로 어떻게 제대로 된 세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독일군의 눈에는 그 사람만이 사람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로 보내어져 죽임당하는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가슴에 새기는 성경구절 중의 하나가 요한일서 3: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진정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막 살지 않습니다. 그런 소망이 넘칠수록 그 소망에 합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12월

행사 및 모임

12/27
12/30

위원장 원례회
송구영신예배(영상예배)

성경공부 안내

새가족반 (주일)TBA
목요 여성 성경공부 (목)TBA
일대일 제자 양육자반 개인별 지정 시간
성경 통독반 (주일)TBA
목요 성경공부 (목)TBA
화요 성경공부 (화)TBA

예배 안내

주일 1부 현장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방송예배 오전 11:00
EM/Youth 방송예배 오전 10:40
어린이 방송예배 오전 10:40
수요 방송예배 오후 8:00
<음성>새벽 기도(월-금) 오전 5:30
<영상>(토) 오전 6:00

주일 예배 기도	금주	내주
	김길수 장로	심동철 장로

매일 성경읽기 표

날자	요일	본문	날자	요일	본문
12/28	월	시편 41:1-13	12/31	목	시편 44:1-26
12/29	화	시편 42:1-11	01/01	금	누가복음 1:1-25
12/30	수	시편 43:1-5	01/02	토	누가복음 1:26-56

Youth/EM Daily Bible Readings

12/28	Mon.	Luke 2:31-35
12/29	Tue.	Luke 2:36-40
12/30	Wed.	Luke 2:41-45
12/31	Thurs.	Luke 2:46-50
01/01	Fri.	Luke 2:51-52

헌금 통계

주일,감사,십일조, 선교,기타 헌금	TBA	성탄감사헌금 지정헌금	TBA	합계	TBA
------------------------	-----	----------------	-----	----	-----